

민주 “尹 굴욕외교가 일본 역사왜곡 초래...사죄해야”

‘독도는 日 고유 영토’ 등 명시에 민주 “굴중 외교 결과가 역사 왜곡” “정상회담 국정조사, 與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표현의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항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욕외교가 초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독

도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강제동원 관련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영토까지 탐욕을 멈추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문명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차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굴종·굴욕외교의 모습을 보였다”며 “그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답게 일본 역사왜곡에 제대로 항의하고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근린국제조항의 일본 교과서 반영 촉구, 일제 강제동원 3차 변제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국가가 강제동원다는 의미를 담은 징병을 참여로 바꿔 가르치겠다고 한다”며 “역사왜곡을 넘어선 범죄다. 역사왜곡에 대해 방어적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교과서는 감정 승인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며칠 후에 승인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정부가 몰랐고 대응을 안 한다고 하는게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소속 유정주(가운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제3차 변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협조를 안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담한 외교첩사에 대해 여당도 조사의 필요성을 느

길 것으로 생각해서 협상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이슬 기자

이석주 여수시의원, 65세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필요성 주장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시의원이 ChatGPT를 활용하여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 관련 보충 질문에 ChatGPT를 활용해 정기명 시정에게 어르신 무료버스를 65세 이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석주 시의원은 ChatGPT에 타지 자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현황과 어르신 무료버스를 65세로 도입했을 때의 장점과 75세로 도입했을 때의 단점을 물었고 이에 “다른

인공지능 ‘ChatGPT’ 활용 시정방향 제시

지자체의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사례를 종합해보면, 인구수, 예산, 평균 이용률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수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는 약 56,000명으로 예산은 중간 정도로 예상되며, 이용률은 도심과 외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로 도입할 경우,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적 참여 및 생활 편의성 증가, 대중교통 이용 촉진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로 도입할 때는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어르신 무료버스를 75세로 도입하는 게 좋을까 65세로 도입하는 게 좋을까 물으니

“어르신 무료버스를 75세로 도입하는 것과 65세로 도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료버스를 도입하는 데에는 예산, 인구구성, 이용률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무료버스 도입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75세 이상으로 대상을 옮기면 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여수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용률 측면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65세 이상의 이동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르신 무료버스를 65세 이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수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예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ChatGPT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이며, 미래 지배적인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개최

해남군의회는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결의안 등 총 30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4월 3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3월 31일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을 예정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고장 영웅 및 독립운동 미서훈자 찾기운동 최선’이라는 주제로 서해군 의원이, ‘인구정책, 출산정책 확 바꾸자’라는 주제로 민경매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정부의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차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

에 대한 일본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한·일 강제징용 제3차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한편 해남군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예산안 8,720억여원에서 1,268억여원이 증가된 규모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은 총 9건으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욱 의원),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해군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